

강화군, 수도권 최고 웰니스 관광지 ‘마니산 치유의 숲’에서 힐링하세요!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족단위 방문객에 인기



마니산 치유의 숲 (사진출처 강화군)



강화군이 단풍 절정기를 맞은 마니산에서 ‘치유의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군은 숲 치유 참여자들이 안정된 기분 상태에서 숲의 치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1시간 30분 코스로 숲 해설사와 마니산 치유의 숲을 걸으며 피톤치드 느끼기, 기제조, 명상 등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13시에 무료로 진행한다.

‘마니산 치유의 숲’은 ‘소나무 피톤치드 길’을 중심으로 한층 높아진 가을 하늘과 상쾌한 바람을 느끼면서, 숲 속의 상쾌한 공기와 함께 불안감과 우울함을 떨쳐버리기에 좋은 장소이다. 또한, 숲 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도 돌보면서 개국과 관련된 단군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중간 중간에는 ‘참성단 실측 크기 복제 조형물’, ‘천부인 광장’, ‘단군놀이터’ 등이 조성돼 있다. 자연을 느끼며 어린이와 어르신도 쉽게 걸을 수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인기가 좋다.

한편, 강화도 마니산은 한반도 중앙에 자리잡고 있어 마니산을 중심으로 한라산과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같다. 마니산 정상에서 단군이 하늘에 제천 의식을 봉행한 참성단이 있다. 참성단에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918개의 돌 계단을 올라가노라면 넓은 들녘 너머 서해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숲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강화군을 위드 코로나 시기에 힐링을 테마로 한 웰니스 관광지로 한층 발전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 권주형 기자

강화군, 수목 기증으로 군민과 함께 화개정원 조성 민선 7기 최대 공약사업, 화개정원 군민과 함께 조성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민선 7기 최대 공약사업인 교동 화개정원을 군민과 함께 조성한다. 군은 군민이 기증한 수목을 활용해 화개정원을 군민과 함께 가꿔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민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특색의 어울림, ▲기증된 수목들의 의미를 세대를 넘어 이어가는 대물림, ▲수목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되살림, ▲군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정원, 두드림(Do Dream)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기증은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화개정원 준공 시까지 접수받으며, 강화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증 신청은 기증 수목이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통해 이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여부 최종 결정된다. 기증 수목은 화개정원에 이식되며 기증자의 성명이 기재된 표찰(뜻말)을 설치하고 정원관리사업소에서 각별한 정성으로 가꿀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과 함께 화개정원을 조성해 정원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정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정성 조성에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은 교동도 화개산 일원 213,251㎡ 부지에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해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5색 테마 화개정원 ▲모노레일(민자) 등을 조성하는 체류형 관광특화 단지 사업이다. 화개산 정상의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는 본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으며, 화개정원은 공정률 85%로 분수가 포함된 물의 정원 공사와 군민과 함께하는 테마 정원을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화개정원
수목기증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화개정원에 특별한 의미를 더 합니다.
수목기증을통하여 화개정원을 빛내주세요!
대상수목 : • 소나무, 단풍나무, 백목련, 주목, 빗나무 등
다양한 수목
• 특별한 자연, 의미가 있는 수목 등
접수문의 : 읍·면사무소

신득상 의장 · 김동신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신득상 의장 · 김동신 의원,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유공 표창 영예 !!
신득상 의장 · 김동신 의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
신득상 의장 · 김동신 의원, 지역발전 공로 의정봉사상 수상 !!



- 강화군의회 신득상 의장·김동신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선정
-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별도 시상식 없이 전국 기초의회 자체 수여
-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강화군의회 신득상 의장, 김동신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229개 모든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30주년 및 제9회 지방자치

의 날을 맞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남다른 의원에게 수여하는 기초의회부문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시상식 없이 각 군·구의회에서 자체 전수하였다. [1]



신 득 상
강화군의회 의장

신득상 의장은 제8대 전반기·후반기 강화군의회 의장으로서 원활한 의회 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화합과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적과 항상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의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2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신득상 의장은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으로 생각한다”며, “내년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7만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군민대통합으로 살기 좋은 복지강화 건설을 위해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써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강화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김 동 신
강화군의회 의원

김동신 의원은 평소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은 물론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와 뜻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2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김동신 의원은 “이 상은 앞으로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군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말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항상 군민의 눈과 마음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 강화 건설을 위해 군민의 대변자이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수상의 소감을 밝혔다. [1]

- 최벽하 기자

Photo NEWS 현/장/출/동



산림공원과 산불진화 훈련



유천호 강화군수 강화초등학교 방역 현장확인(에어샤워기 지원)



산림공원과 산불진화 훈련

유천호 강화군수, 단계적 일상회복 안착위한 적극 행정 강조

지역사회 유행 우려 속 단계적 일상회복
대군민 담화문... 높은 군민의식에 감사, 방역수칙 준수 재차 강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일 진달래홀에서 부군수, 국·과장, 읍·면장 등 참석한 가운데 11월 월례 조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 유천호 군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유천호 군수는 “일상으로 복귀가 시작되는 시점에 관내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 검체 검사, 광범위한 역학조사,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역수칙 점검 등 지역 사회 확산을 막는 데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정부방침에 따라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을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유 군수는 지난달 31일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해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유 군수는 “방역에 대한 높은 군민의식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과 발열 등 증세가 있을 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

강화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최



강화군의회(의장 신득상)는 25일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국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7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2건과 강화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1건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한다. 또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 받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로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동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평소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득상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만큼 금년도 주요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등 한해의 마무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 송기훈 기자

강화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에서 접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현장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개정된 소상공인법에 따라 올해 3분기(7월7일~9월30일)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 기준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고 보

상금은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이다. 군은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강화중앙시장 B동 3층)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방문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손실보상전담창구(☎032-934-3088) 또는 손실보상지원콜센터(☎1533-3300)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 소상공인·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 10억원 이하의 사업체

지원한도
분기별 최대 1억원에서 최소 10만원
※ 단,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강화대로 340, 중앙시장 B동 3층 창업·일자리센터 내 전담창구로 방문 접수

문의: 강화군손실보상전담창구 ☎ 032)934-3088
손실보상지원 콜센터 ☎ 1533-3300

유천호 강화군수, 어유정항 등 현안사업 국가차원 지원 건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함께 어유정항 방문

유천호 강화군수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을 만나 어유정항 종합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홍종욱 청장과 유천호 군수는 경인북부수협 이만식 조합장과 매음어촌계 어업인 등과 함께 어유정항의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유 군수는 이 자리에서 ▲‘물양장 부지 환경 정비’(어구 수리장 포장 및 주차장 확·포장) ▲‘노후 소형어선 인양기 교체’(10톤형) ▲수산업 및 관광·레저 기능을 갖춘 국가어항 조성 등을 건의했다.

한편, 어유정항은 석모도의 남쪽 끝에 있는 국가어항으로, 인근 어선의 피난항 기능, 해양교통 및 관광기능을 담당하는 종합어항으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연면적 993.86㎡, 29개 점포)이 준공되며 어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어유정항은 관내 유일의 국가어항으로 본래 기능인 수산업 및 수산물 유통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종욱 청장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함께 어유정항 방문

유천호 강화군수,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현장점검

군민과 함께 평화·안보 상징 화개정원 조성 수려한 자연경관과 빼어난 조망으로 관광 랜드마크 기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민선 7기 관광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이 마무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25일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기증 수목의 이식 관리, 교통 접근성 향상, 간이 휴게시설 설치 등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 대책을 당부했다. 교통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민선 7기 최대 공약사항으로 화개산 일원 213,251㎡에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해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5색 테마 화개정원 ▲모노레일(민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북한 조망이 가능한 화개산의 지리적 특색과 인근 화개산성, 연산군 유배지, 교동향교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평화와 안보를 상징하는 관광특화 단지로 개발된다. 화개산 정상에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는 본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지난 5월 착공해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 최초의 지방정원인 5색 테마 화개정원은 공정률 85%를 보이며 오는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유천호 군수는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군민들께서 수목 기증을 통해 화개정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각별한 정성으로 이식 수목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



유천호 군수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현장방문

강화군,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 착착 진행

화개정원과 함께 민통선 대표 평화 관광지로 육성



대룡시장 (사진출처 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교동도 대룡시장이 ‘추억의 골목길 사업’으로 민통선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22년까지 총 사업비 19억(국비 80%, 지방비 20%)을 투입해 골목길 보도블럭 포장, 마을 게이트, 시장 게이트 등을 조성했다. 올해는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해 대룡시장 상인회에서 제안한 쉼터조성, 골목길 재정비 등을 오는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내년도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룡리 상인회 및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교동도를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새단장해 나갈 방침이다. 대룡시장은 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난 온 실항민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인 ‘연백장’을 그대로 본 떠서 만든 골목시장이다. 골목 곳곳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벽화들과 조형물, 오래된 간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이발소, 잡화점, 신발점, 약방 등 시간이 멈춘 듯 1970년대의 풍경을 간직한 곳이다. 골목마다 오래된 간판, 이발소, 잡화점, 신발가게, 약방, 다방 등의 1970년대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시간이 멈춘 듯해 옛 정취를 느끼려고 주말이면 도시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한편, 군은 ‘평화의 섬 교동도’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화개산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은 교동도 화개산 일원 213,251㎡ 부지에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해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5색 테마 화개정원 ▲모노레일(민자) 등을 조성하는 체류형 관광특화 단지 사업이다. 화개산 정상에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는 본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으며, 화개정원은 공정률 85%로 분수가 포함된 물의 정원 공사와 군민과 함께하는 테마 정원을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옛 교동시장의 모습이 재현되고 화개산 전망대와 화개정원이 준공되면 교동도는 대한민국 민통선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권주형 기자

강화군, 선원면 창4리 제1호 치매안심마을 탄생

‘마을에서 치매 노인 돌본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선원면 창4리 ‘기억새록마을’을 치매안심마을 1호로 선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치매안심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치매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군은 치매안심마을에 ▲치매인식개선 교육, ▲치매선별 검사,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극복선도단체 구축,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주민 참여형 치매안심마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1호 치매안심마을을 시작으로 마을별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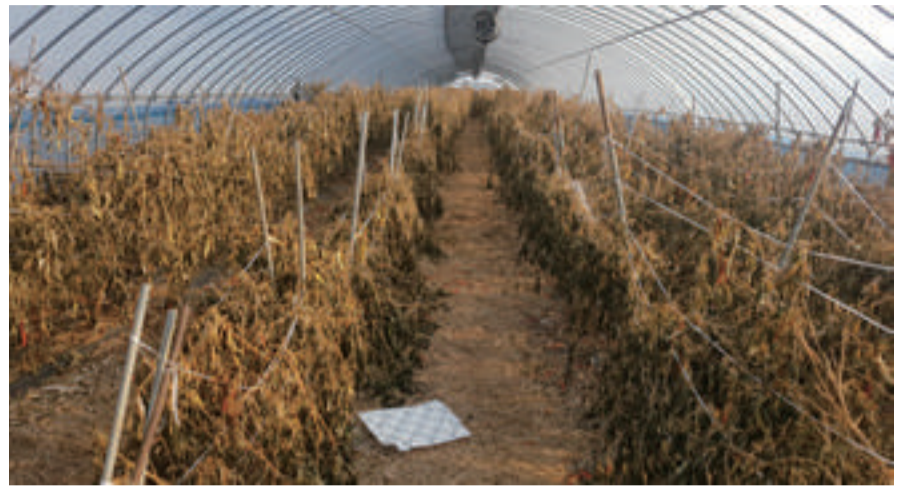
유천호 군수는 “치매가 있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치매로부터 걱정없는 강화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 고추 수확 후 포장관리 영농지도

수확기 잦은 비로 병충해 관리 중요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내년 고추 농사를 준비하는 농가에게 고추 수확 후 포장관리 지도에 나선다. 고추 농사의 경우 10월 중순이면 수확이 마무리된다. 수확 후 고추 잔재물을 방치하면 고추의 병든 과실이나 가지에서 병원균이 월동을 하기 때문에 포장을 먼 곳으로 치워야 한다.

잔재물을 그대로 두면 ‘탄저병’의 경우 병원균이 포장에 버려진 병든 과실이나 고춧대에서 월동 후 이듬해 재발생 할 수 있다. ‘칼리병’의 경우 총채벌레가 월동을 해 이듬해 다시 병을 발생시킬 수 있어 내년 고추 농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군은 고추 수확 후 포장관리를 위한 영농지도에 나서 내년도 풍년 농사를 준비할 방침이다. 고추 잔재물이 제거된 포장에 퇴비, 볏짚 등을 살포하고 충분히 부숙해 미부숙 퇴비 피해를 줄이는 것도 좋은 포장관리 방법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병해충 피해가 없는 고품질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겨울나기 전 포장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좋다”며 “영농 기술 지도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품질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1**

강화군,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최대 2천만 원 보상

강화군민 별도 가입없이 누구나 혜택

구분	보장내용	보상금액
사망사고	강화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시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병원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 14세 미만자 제외)	1422만원
	보험 부담 시 (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문의: DB손해보험 02)475-8115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032)930-3494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전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다. 자전거보험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2년도 3월 13일까지로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을 포함해 벌금은 최대 2,000만 원, 처리지원금은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02-475-8115)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송해면, 쓰레기 무단 투기지를 힐링 화단으로

강화군 송해면(면장 유정진)은 솔정리, 신당리 국도변과 송뢰저수지 일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신규 화단으로 조성해 힐링 공간으로 만들었다.

신규화단은 송해면 노인회와 부녀회 등에서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봄부터 조성해, 이날 영산홍, 가우라, 메리골드 등 식재를 식재하고, 꽃씨(코스모스) 2kg를 파종해 화단 조성을 완료했다. 유정진 면장은 “요즘 각 지역마다 쓰레기처리가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작지만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



송해면 힐링화단

인천시, 지중화사업 국비 59억 원 확보

- '22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8건, 국비 59억 원 확보, 전년도 대비 950% 확대 -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위주 사업 선정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전선로 지중화 사업지원(그린뉴딜)'에 중구 인성 초·중·고 일원 지중화 등 6개 군·구 8구간, 총 6.1km가 선정되어 국비 59억 원과 한전·통신사 사업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지중화사업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시와 군·구에서 사업비의 50%를, 한전과 통신사가 나머지 50%를 부담해 진행한다. 그리고 작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국비지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통학로, 전통시장 부근 도로 및 도시재생사업구간을 대상으로 국가가 20%, 한전과 통신사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시와 군·구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작년에는 2구간 0.7km 국비 6억 원을 확보했으나, 올해는 8구간 6.1km가 선정되어 국비 59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 구간은 동구 인천산업정보학교~동명초 일원, 미추홀구 도화초 일원, 계양구 화전초 일원, 강화군 강화여중~갑룡초 등 학교 주변 7구간과 남동구 아암대로 소래포구어시장 주변 등 전통시장 주변 1구간이다.

인천시에서는 국비 사업 선정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군·구와 사전에 지중화사업 대상지에 대해 협의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구간을 조정하고 관계기관·주민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신청해 전년도 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8건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원도심의 보행 안전과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 중 시민들이 가장 크게 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인도를 차지하는 전주와 골목을 어지럽게 하는 배전선로와 통신선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시에서는 2025년 까지 48.3km를 지중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김진선 시 도로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국비지원 지중화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전통시장 주변 도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꾸준한 사업시행으로 원도심 지중화 비율을 높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원도심 경관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 - 송기훈 기자



“세계 전통 악기! 얼마나 알고 있니?”

- 미추홀도서관 다문화 체험교실 「세계악기 배우기」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미추홀도서관에서 12월 4일 오후 2시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ZOOM)을 활용해 「세계악기 배우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체험 교실은 어린이들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특히 이번 「세계악기 배우기」는 다문화 강사가 직접 세계의 전통 악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나라의 악기를 체험하고, 직접 연주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참가신청은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전화(☎440-6643) 및 인터넷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도서관 누리집(www.michuhollib.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연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장은 "다양한 주제의 다문화 체험 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와 다문화의 '다름'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와 조화롭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

Photo NEWS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공공형 택시플랫폼 "e음택시" 사업이 출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감소, 근로자 이직률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 택시업계의 부담경감 및 시민들의 편리한 택시 호출 통합서비스 도입 필요성 증대에 따라 "e음택시" 서비스를 11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e음택시"란 지역화폐 플랫폼(인천e음) 기반의 택시 호출서비스를 말하며, 대기업 플랫폼의 독점으로 택시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형 플랫폼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천e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입한 서비스다. [1]

일산대교 무료통행 시작됐다… “잘못 낀 첫 단추 정상화”

“목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에서 13년간 돈을 받아 왔습니다. 27개의 한강 다리 중 이곳만 유료였습니다. 명백한 지역차별이고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이었던 일산대교가 10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 됐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시는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하고 무료통행 카운트다운 행사를 가졌다.

12시 정오가 지나자 일산대교 요금소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일제히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무료화를 반겼다. 일부 시민들은 ‘경축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 무료화 환영’, ‘교통기본권 회복 환영’ 현수막이 붙은 차량을 몰고 톨게이트를 지나기도 했다.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과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개월간 (주)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주)일산대교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라 (주)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주)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결포동과 고양시 범곡동을 잇는 길이 1.84km의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민자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하영 시장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오늘은 차별받고 소외됐던 서부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

장을 위해 결단해 주신 이재명 전 도지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왔다. 늦게나마 공익처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달성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김포, 고양, 파주 한강하구 3개시의 상생발전과 연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 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 - 송기훈 기자

정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에 검단연장 포함해 추진키로

- 인천시는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와 신속추진 합의 -
- 인천2호선 검단연장선 포함해 통합계획 수립 추진 -

정부가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에 인천2호선 검단연장선을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3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에 따르면 예타 조사 결과 심의에 오른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21. 9월 개최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시된 연계노선과의 통합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검단연장 노선이 포함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 갈라져 경기도 고양시(일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경기도를 비롯해 노선이 지나가는 김포시, 고양시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공동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로 추진하는 본 사업이 추진되면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의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GTX-A와 환승되는 등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개요 및 노선도

공동 추진에 합의한 해당 지방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예산도 분담키로 했다. 내년 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하반기 국토부를 거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류윤기 시 철도과장은 “인천시는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노선이 반영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

강화군, 인천대 독립운동연구소와 지역출신 독립유공자 발굴 협력

유천호 군수 “지역 독립유공자 대대적 발굴과 재평가에 최선”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4일 인천대학교(이사장 최용규)와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소장 이태룡)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신청’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한말 ‘매천야록’에 의하면 경기의병이 강화에 모이니, 무릇 7천 명이나 되었고, 일본군과 일진회원 피살자가 셀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강화군 출신으로 ‘대동창의진’을 이끌었던 이능권 장군은 의병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능권 의병장은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한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러 가는 이준 일행을 호위해 일본군 수비대의 감시망을 뚫고 국외로

회송했으며, 군대해산령으로 해산된 강화진위대의 군인 300여 명을 규합해 일본군과 접전을 벌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호춘, 유성준, 김추옥, 여만복 등과 더불어 강화군 길상면의 방의표로부터 군자금을 조달하는 등 의병활동을 전개했다. 이능권 의병장은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한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러 가는 이준 일행을 호위해 일본군 수비대의 감시망을 뚫고 국외로 회송했으며, 군대해산령으로 해산된 강화진위대의 군인 300여 명을 규합해 일본군과 접전을 벌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호춘, 유성준, 김추옥, 여만복 등과 더불어 강화군 길상면의 방의표로부터 군자금을 조달하는 등 의병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강화도에서 함께 의병투쟁을 하신 많은 의병들은 아직 발굴되지 않거나 평가를 받지 못한 채 묻혀 있어 지역 사회에서의 안타까움이 컸다.

최용규 이사장은 “인천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독립운동사연구소를 설립해 2,828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시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를 제대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그동안 강화의병과 3·1독립만세의거, 반제국주의 투쟁 등에 많은 분들이 순국하거나 투옥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사료 발굴을 제대로 못했다”며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강화 출신 의병뿐만 아니라 3·1독립만세의거와 관련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도 서훈이 되지 않은 죽산 조봉암 선생을 비롯한 많은 애국지사들에 대한 공적도 제대로 평가되는 것이 우리 강화군민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

강화군민의 작은 소리도 담아주세요!!

이건창(1852~1898)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영재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1114번길 6번지에 있는 생가는 인천시 기념물 제30호다. 이건창의 조부 충정공 이시원은 개성부유수와 이조판서를 지냈고, 부친 이상학은 증이조참판을 역임하였고, 이건창 자신도 한성부소윤, 안핵사, 승지 등의 관직을 역임한 양반 가문이었으며, 강화도 토박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와 건물이 낙후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 하는 제보를 받고 현장답사를 하였다. 초가지붕은 삭아서 작은 충격에도 붕괴 될듯한 모습이었고, 관리인의 이야기는 기관 관계자가 현지답사를 마치고 갔으나 아직 진행은 안되고 있다고 하며, 초가지붕을 재건할 예산 기술자들도 이제는 다 돌아가시고 재료도 구하기가 힘들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교동면에 있는 송암 박두성 생가 복원시와 복원후의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기술과 재료 문제는 아닌거 같아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군민의 작은 소리도 담아서 소통할 것이다.(사진 10월 31일) ▣

- 최벽하 기자



관리소홀로 안타까운 모습의 이건창 생가(좌)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박두성 생가(우)

강화군 보문사, 용왕전 상량식 개최

유천호 강화군수는 4일 보문사 용왕전 개축공사 상량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문사 선조 주지스님, 전등사 여암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강화군의회 신득상 의장, 강화경찰서 서민 서장 등이 참석해 무재해, 무사고 및 무하자 공사를 기원했다.

상량식은 목조 건물의 골재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대들보 위에 대공을 세운 후에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상량)를 올리고 거기에 공사와 관련된 기록과 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용왕전 개축공사는 지난 6월 착공해 11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선조 주지스님은 “용왕전 개축공사는 보문사의 숙원사업으로 오방용왕님을 모신 용왕전이 준공되면,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용왕전이 될 것”이라며 “불교의 핵심 사상인 ‘자비’를 실천해 관음성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보문사 용왕전이 군민의 삶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며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전통사찰과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江華鄉校 강화향교

‘成均館(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을 환영하며



고수진
강화향교 장의

전국에는 234개의 鄉校(향교)와 書院(서원)이 700여 개 있습니다. 儒林에서는 향교와 서원을 통해서 청소년 인성교육 및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윤리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교에 대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풍속의 교화 내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섭니다. ‘成均館(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을 발족한 계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조회 때마다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있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 생생한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은 외모부터가 반듯하게 학생다워야 합니다.” 외모

의 학생다운 호감에서 勉學(면학)의 분위기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鄉校(향교)나 書院(서원) 역시도 학교다운 풍모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강화향교는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34호입니다. 1127년 고려 인종 5년에 세워진 由緒(유서) 깊은 향교입니다. 이는 고을마다 학교를 세워 널리 교육에 진력을 다하라는 유시 때문이었습니다. 즉 유학의 기본사상은 孝悌(효제)교육의 보급을 普遍化(보편화)를 위해 세워졌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교는 인류의 큰 스승인 孔夫子(공부자)를 모신 祭禮(제례) 공간인 文廟(문묘)에 부속된 중등교과 과정으로 조선조에는 17세에서 40세까지 입학할 수 있었고, 연산군 이후에는 40세 이상도 재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校宮’(교궁) 또는 ‘齋宮’(재궁)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서울에는 四學(사학)으로 中學(중학), 東學(동학), 南學(남학), 西學(서학), 오늘날 지방마다 건립된 국립 중등학교와 같습니다. 고려조에는 강화도의 관청이 古邑(고읍)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려산 남쪽이었습니다. 內可面(내가면) 古川里(고천리)입니다. 고려산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고인돌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산기슭 숲속에 ‘옛 향교 터’라고 돌비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132년 몽골 침략으로 고려의 개성 정부가 강화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성현들의 위판이 지금의 강화 갑곶리 墨洞(묵동:먹절)로 옮겨집니다. 이후 서도면 불음도로 옮겨집니다. 조선조에 와서는 1624년 인조 2년 당시 강화유수 심열이 小東門(소동문)밖 松岳山(송악산) 기슭에 세웠다 합니다. 현재 東門(동문)인 望漢樓(망한루) 밖 강화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송악산은 바로 뒤쪽 북산입니다. 몽골 전란기에 고려정부가 강화도로 피난하면서 궁궐을 짓고 北山(북산)을 송악산이라 불렀습니다. 1629년 인조 7년에는 강화유수 이안눌이 ‘明倫堂’(명륜당)을 세워서 학교다운 면모를 갖추 ‘學宮’(학궁)이라 칭했다는 겁니다. 1673년 현종 14년에는 유수 민시중이 남산골 지금의 남산 기슭으로 옮겼고, 1731 유수 유척기가 현재의 자리로 옮기면서 향교의 전반적인 체제를 갖췄다고 합니다. 강화도가 몽골 침략과 丁卯(정묘) · 丙子(병자)호란의 전란의 겪으면서 聖賢(성현)들의 위판(位版) 역시도 안전하고 적당한 곳으로 피난을 다녀야 했습니다. 이는 儒家(유가)의 至聖先師(지성선사:공부자)에 대한 崇慕(숭모)와 尊賢(존현)의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1906년 고재형 이란 선비가 강화도를 여행을 하면서 쓴 『심도기행』 중에는 “높은 담장 동쪽에는 큰 강당이 있으니 예로부터 學業(학업)하는 소리가 강화 고을 진동했네.” 라는 시가 있습니다. 2010년 여름에 영주 선비교육원에 갔을 때 출입문인 2층 큰 누각에 ‘朝陽樓’(조양루) 현판이 있습니다. 강화향교 역시도 외삼문에 ‘仰止樓’(양지루) 편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재형 선생은 文廟(문묘)를 방문하면서 시에 “양지루 앞에 서니 마음이 숙연하다 대성전 우뚝하니 ‘聖師’(성사:공부자)의 자리일세.”라며 몸가짐을 경건히 했습니다.

외삼문 밖에는 이안눌의 明倫堂(명륜당) 창건비가 있고, 1870년 고종 7년에 세워진 유수 이용희의 文廟紀蹟碑(문묘기적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고을에 文廟(문묘)가 있는 것은 倫理(윤리)와 紀綱(기강)을 밝히려는 것이요, 倫理(윤리)를 밝히는 데에는 보고 듣는 것부터 비롯하는 것인데, 문묘의 이와 같이 황량한데 어찌 經營(경영)하고 修理(수리)할 것을 도모치 않으리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成均館(성균관)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의 所期(소

기)의 목적과 일치하는 바입니다. 현대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성 상실, 메마른 인성을 되찾고자 인간윤리와 사회적 紀綱(기강)을 바르게 밝히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곧 큰 배움인 ‘明德’(명덕)을 밝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향교(학교)라는 곳은 인간의 正道(정도)를 崇尚(숭상)하는 곳이며, 풍속 교화를 宣揚(선양)하는 곳입니다.

『論語(논어)』 [里仁(리인)]편에 “里仁爲美(리인위미), 擇不處仁(택불처인), 焉得知(언득지) 마을의 풍속이 어진 것이 아름답다. 풍속이 仁厚(인후)한 곳을 가려서 居處(거처)하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里仁’(리인)은 바로 江華島(강화도) 같은 고을입니다. 孔夫子(공부자)의 인재 양성 사업은 참다운 인간상인 ‘君子’(군자)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군자는 단지 ‘處仁’(처인)하는 것이 아니라, ‘里仁’(리인)을 개척해 나가는 실천적인 지도자일 것입니다. 새마을 새마을 미풍양속을 가꾸어 나갈 우리 ‘成均館(성균관)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이 발족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成均館(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이 헛되이 때를 놓치지 않고 기필코 人倫(인륜)의 도리와 사회의 秩序(질서)가 透明(투명)하게 公正(공정)으로 바로 잡히길 기원합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행복감은 공동체의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儒家(유가)의 人倫(인륜)이 大同社會(대동사회)로 나아가는 관문이며, 국가 공동체의 이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기쁘다는 “有朋自遠方來(유봉자원방래)”의 논어의 구절을 상기시키면서, 정성과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 최벽하 기자

2021년도

(재)강화군장학회

장학생 모집

공고

접수기간

접수처

선발인원

지원자격

2021. 10. 28. ~ 11. 17. (20일간)

※ 우편접수는 2021. 11. 17.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강화군장학회
(강화읍 강화대로 401 향군회관 1층)

140명 이내(고등학생 70명, 대학생 70명)

강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자의 자녀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강화군청 및 강화군장학회 홈페이지 참고

문의 : (재)강화군장학회 032)932-2580

032)933-9657

학력 평가에 대한 제언



이 대 형
인천교총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를 보면 측정 대상인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습결손이 심화되었던 2020년의 결과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학력저하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심화되고 있었고 단지 코로나 정국에 심화가 탄력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렇다면 왜 '학력저하가 심화되고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는 교육 당국의 평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절차에 있어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당국은 평가가 가지는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평가는 학생들을 줄 세우기 하는 비교육적 행위' 라고 단정 짓고 교육에서 평가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왔다. 인천의 경우 친전교조 성향의 1기 민선 교육감 초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면서 일제고사 폐지 및 수행평가에서 지필평가를 금지하는 악수를 두었고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월말 또는 학기말, 학년말에 평가하는 일제식 지필평가는 비교육적인 처사로 치부하면서 학업 성취를 확인하는 평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후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였는지 수행평가에서 지필평가를 인정하고 학기 초 진단평가는 학교별, 학년별 일제식 지필평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였다. 이는 교육청 스스로 학업 성취를 확인하는 일제식 평가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 확신한다.

교육과정에서 평가는 학생들의 기초선을 설정하고 학생들의 개별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학생들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이런 교육적 처방이 필요하다.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실시는 이런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사교육이 만연한 요즘 학원에 가면 학생들의 수준을 전국 단위로 확인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단계를 제안하고 있는데, 과연 공교육에서는 언제 이런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학력평가가 없어진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말만 되면 다음연도 학급 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담임선생님의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학급을 편성하다 보니 효율적인 재배치가 담보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교과 특성 상 과정중심의 평가가 필요한 교과가 있고 지필평가를 통해 해야 하는 평가가 필요한 교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과에 대하여 과정중심 평가라는 일관적인 잣대를 대고 일방적인 평가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청은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모두에 밝힌 것처럼 평가를 한 줄 세우기식 수단이라는 편협한 시각을 개선하고 평가는 학생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능해 주는 지표라는 점을 인식하여 더욱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대 전환을 촉구한다.

둘째, 학년말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실시를 제안한다. 학업 성취는 교사의 책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는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교사의 책무성을 갈음하는 자료로 사용하거나 학생 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평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될 것이다. 요즘은 2월 한 달간을 새 학기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새 학기 준비에 1순위는 수업 개선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단검사를 3월초에 실시함으로써 새 학기 학생들의 전 학년 학력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새 학년을 준비하는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학년 말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실시는 이런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는 어쩌면 단순하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원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평가는 이런 물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안내하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 아이가 몇 등인가에 집착하는 학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 아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에 더욱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제 공교육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배움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학생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의 정확한 처방 속에서 수업을 받는 그런 교육환경이 아닐까? 상상해 본다. 수업 중 밝게 웃음 짓는 학생들의 미소는 이렇게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최백하 기자

PhotoNEWS 내고장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들

사진출처 강화군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강화여고 도서부 학생들, 급식실 조리종사자 어머님들께 훈훈한 마음을 전하다!

강화여자고등학교(유복현 교장)에서는 매년 창의적 독서교육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활동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는 강화군청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관련된 주제 특강을 진행하는 <학생강사, 주제전문특강>에서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창의융합독서반(=책마루 도서부)을 중심으로 진행된 <학생강사, 주제전문특강>은 학생 1인 1 주제탐구 결과를 15분간 강의와 체험의 형태로 실시하는 14인 14색 교육활동이다. 특히 2학년 김지안 학생은 '노동인권'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숨은 조력자인 '노동자'로 배움터 지킴이, 청소노동자, 급식 조리사의 삶과 현실을 짚어보는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분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실제 도서부 14명 전체 학생들이 동참하여 급식실 조리종사자 어머님들을 위한 메시지를 작성했고, '밥하는 동안 밥 먹듯 자주 다친다'는 말을 인용하며 빨간머리엔 캐릭터가 그려진 밴드를 준비해서 '다치시지 마시고, 혹시 다치시더라도 이 밴드를 붙이시고 빨리 나오세요~!'라는 마음도 전했다. 한편 지난 11월2일(화) 점심시간에 김혜연 지도교사는 아이들이 부탁한 메시지 카드, 선물, 간식 그리고 영상편지 파일을 노트북에 담아서 급식실을 찾았다. 급식실에 계시던 일곱 분의 조리종사자 어머님들은 학생들의 영상편지와 소소한 각종 선물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밝게 웃으며 "애들아, 고마워~!!"라며 화답하는 영상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주제특강을 준비한 김지안 학생은 "인권존중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고, 참여해주 도서부 친구들 덕분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급식실에서 만나는 조리종사자 어머님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며 김혜연 교사는 "인권존중의 기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중한 마음을 작지만 따스한 말로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다."며 아이들을 격려했고, 유복현 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협력체제를 구축해준 강화군청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1]



새마을금고 MG희망나눔 농어촌 경로당시설 지원사업 물품 전달식



새마을금고 MG희망나눔재단에서는 강화새마을금고를 통해 강화읍 관청리 중앙경로당에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자전거헬스기 2대 등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유경진 본부장, 강화새마을금고 고문섭 이사장과 경로당에서는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장기천 지회장,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강화읍분회 유제인 분회장, 중앙경로당 류중현 회장, 이선형 여성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새마을금고 MG희망나눔재단은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경로당 시설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수준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를 통한 새마을금고의 사회공헌사업 실현을 목적으로 농어촌 경로당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유경진 본부장은 "지원된 물품이 경로당 어르신들 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면 좋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MG희망나눔재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새마을금고 사회공헌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중현 회장은 "우리 경로당에 꼭 필요했던 물품을 전달받아 아주 유용하게 잘 쓰겠다"고 말하고 새마을금고 MG희망나눔재단과 강화새마을금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1]

강화군 새마을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

강화읍 소재 가정 도배, 청소 등 구슬땀



유천호 강화군수는 지난 28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회장 신봉기, 김은숙)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강화읍 새마을 지도자 30여 명은 곰팡이가 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 곳곳을 청소했다. 신봉기 회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서 집 고쳐주기 봉사의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요즘같이 힘든 시국에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

우리마을소식

'코닝과 함께하는 해맑은 우정나들이' 대체 프로그램으로 영화 관람 및 미니운동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았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맘껏 웃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마을과 오랜 시간 함께해주신 코닝정밀소재 임직원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발달장애인지역재활시설 강화도 우리마을 <http://urimaul.net>



강화66동우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강화군은 강화66동우(상조)회(회장 김정근)가 5일 군수실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정근 회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부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66동우(상조)회는 1966년생들이 모여 만든 동우회다.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 기탁 외에도 도로변 환경정화 활동, 어려운 이웃에 쌀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강화농특산물 홍보 대사를 자처하며 농산물 판매에 앞장서 지역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1]



건·강·참·살·이

강화군, '삼산대교 등에 '생명사랑' 표지판 설치

생명 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 자살예방 기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삼산대교, 외포항, 고려저수지 등에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표지판'을 설치했다. 생명사랑 표지판은 '나눠 주세요 당신의 짐을, 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라고 쓰인 문구와 함께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1577-0199, 1393)와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032-932-4093)를 안내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을 전하는 생명사랑 표지판을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화 전군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안내

1. 접종대상 : 생후 6개월 이후 **강화 전군민(주민등록상)**
2. 접종일 준비물 : 주민등록증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3. 접종대상별 접종 기간 및 접종 기관

접종 대상	접종기간	접종기관
신규 확대 대상 (주민등록상 강화군민)	만 19 ~ 64세 (1957. 1. 1. ~ 2002. 12. 31)	10. 19. ~ 11. 30. ·보건소 ·주소지 보건지소
	만 14 ~ 18세 (2003. 1. 1. ~ 2007. 12. 31.)	10. 12 ~ 11. 30 관내 병원·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만 75세 이상 (1946. 12. 31. 이전)	10. 12. ~ 2022. 2. 28.
	만 70 ~ 74세 (1947. 1. 1. ~ 1951. 12. 31.)	10. 18. ~ 2022. 2. 28.
	만 65세 ~ 69세 (1952. 1. 1. ~ 1956. 12. 31.)	10. 21. ~ 2022. 2. 28.
생후 6개월 ~ 만13세 어린이 (2008. 1. 1. ~ 2021. 8. 31. 출생)	1회 접종	10. 14. ~ 2022. 2. 28.
	2회 접종	2022. 4. 30. 까지
임신부(임신주수에 상관없음)		2022. 4. 30. 까지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 시 접종 일정과 대상을 꼭 확인 후 방문

고품격 프리미엄 PT샵 위너핏
GRAND OPEN

43년 고성능 태닝기
FITNESS FOR LIFE

호캉스 편의시설 개인샤워실

예약문의
032 934 1003
010 9153 6524 / 010 6649 6068

강화읍 남문로14 (구 하이마트 건물3층)

꽃속에 삶, 삶속에 꽃
에덴화원

전국 꽃 배달 서비스
꽃다발, 꽃바구니, 성전꽃꽂이, 화환, 화분 전문
강화 최대규모 생화보유 **월 2회 정기꽃 구독**

주일은 쉽니다!

032-932-9772 / 010-5376-9772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49 (스타벅스 옆)

뜻깊은 행사에 빛을 더해주는 피로연 행사
중앙부페

평일 11:30 ~ 14:00 / 가격 7000원

강화대로 393번길 10 지하1층
010-4056-6068